

긴급 설문조사 '언론보도 너무 과열됐다'

응답자 93% '언론 자제' 주문

'지나친 월드컵 열기, 독서와 출판 저해한다' 도 50%

문화계, 시민단체, 기업인, 학계, 출판계 등 17명 대상



문화계

를 비롯한 사회 각계 인사들 대다수는 월드컵 관련 언론보도가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판저널>이 최근의 '월드컵 신드롬'에 대한 사회 일각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가 "최근의 월드컵 관련 언론 보도가 너무 과열됐다"고 대답했으며, 응답자의 50%는 "월드컵이 책의 출판과 독서 분위기를 크게 저해한다"고 답했다.

좀더 신뢰할 만하고 보편 타당한 모집단 구성을 위한 다수의 설문대상자를 확보하기엔 시간의 제약이 컸다. 그래서 <출판저널>은 믿을만한 통계적 결과를 얻기보단, 월드컵과 출판, 언론보도 등에 관해 평소 특정한 의견을 내거나, 관심을 표명해온 몇몇 인사들의 단상(斷想)을 채취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은 모두 17명. 이들은 문학, 출판, 학계, 기업체 대표, 언론인, 시민단체, 연구소, 공직자 등을 두루 망라하고 있다. 그 숫자는 비록 적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작금의 월드컵 신드롬에 대한 지성계의 무게 있는 진단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다.

질문은 모두 세가지였다. △ '월드컵이 책의 출판과 독서분위기를 저해하는가', △ '월드컵은 이른바 지성적 사고나 태도를 억제하는 원초적·야성적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 '최근의 월드컵 관련 보도가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하는가' 등이었다.

첫 번째 문항에선 '크게 저해한다'가 7명(50%), '조금 영향이 있다' 5명(36%), '별로 영향이 없다' 2명(14%) 등의 결과로 나타났다. 월드컵 열기속에서 책과 출판에 관해 어떤 정도이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대답이 86%에 달하는 셈이다.

또 두 번째 문항에선 야성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대답이 2명(14%), '조금은 그런 면이 있다'가 7명(50%), '전

혀 그렇지 않다' 5명(36%)이었다. 이는 축구 그 자체가 무조건 지성적 태도와 배치되는 야성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지나친 열기와 흥분에 매몰될때는 다분히 그런 소지가 크다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결과다.

특히 언론보도의 과열에 대해선 해당 문항 응답자의 93%인 13명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1명만이 '그렇지 않다'고 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출판저널>은 표지이야기 기획의도를 감안, 이같은 응답자들로부터 구체적인 까닭을 들어봤다. <출판저널>에 보내온 그들의 생각을 소개한다.

■ '지성적 사고나 태도 억제하는 야성적 행위'

△ 고명철 교수(광운대 교양학부): 국가 간 대항 축구 시합 자체가 갖는 성격으로 인해 '이겨야' 한다는 강박증이 합리적, 이성적 사유를 방해한다. 특히 우리처럼 지난 대회의 좋은 성적(4강 진출)으로 인해 이번 대회의 좋은 성적을 과도하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 사회의 정치적 환멸감으로 인한 월드컵에 대한 기대는 지성적 사고를 억제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 김선경 기자(월간<빛과소금>): 맹목적 집단주의, 우승만이 용납되는 집단 최면현상이 개인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것 같다. 확실히 흥분 상태가 지속되며, 이성적인 사고가 힘들어져서 독서 생활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 박상익 교수(우석대): 스포츠가 상업주의로 변질되면서 소비를 충동질하는 광고 마케팅이 대중을 선동하기 때문이다.

△ 유성호 교수(한국교원대 국어교육과·문학평론가): 전체주의의 맹목적 분위기 아래서 개인적 사색을 동반해야 하는 지성적 사고는 한시적으로 억압된다.

■ '지성적 사고나 태도 억제하는 행위라고 생각안함'

△ 허선 대표(진선 북카페) : 경기를 관람하면서 선수나 경기의 흐름을 분석하는 태도는 과학적이라 볼 수 있고, 경기를 즐기는 태도 역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배원정 소장(행복한 성문화센터) : 월드컵이라는 운동 자체가 사람들에게 야생적·본능적인 공격성을 야기하기는 하지만, 지성적인 태도를 억제하는 동물적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늘 그렇게 이성적으로 억제하려 애쓰는 사람의 생활이 어쩌다 한번쯤 이성의 규제에서 풀려나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 천대운 교수(중앙공무원교육원) : 월드컵도 하나의 글로벌 문화이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독일에서조차도 이번 월드컵에 대해서 찬성하는 집단들과 반대하는 집단들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지성적 사고나 태도는 스포츠를 통해서도 발전할 수 있다.

△ 백원근 선임연구원(한국출판연구소) : 월드컵은 국가 대항 스포츠 행사일 뿐이며, 이성을 억제하지도 않는다. 굳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없다.

△ 임윤정(환경재단 팀장) : 월드컵으로 인해 온 거리가 붉은 물결로 가득하고, TV 등의 매체에서도 온통 월드컵 얘기로 가득하지만, 그런 획일성 속에서도 남들과 다른 문화를 찾고, 한층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 '월드컵 관련 보도가 너무 과열됐다고 생각'

△ 강은경 대표(홍보기회사 시삽미디어) : TV의 모든 프로그램이 월드컵이고, 광고마저도 월드컵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 구조상 당연한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바란다면 월드컵에 대한 언론의 시각이 중립적이었으면 한다.

△ 고명철 교수(광운대 교양학부) : 인터넷이나 공중파 등 각종 미디어 매체를 총동원하여, 거의 매일 월드컵과 관련한 뉴스가 소개되고 있다. 가득이나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첨예해지다보니,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합리적 판단보다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적 분출을 통해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다. 월드컵 4강 신화에 대한 지나친 추억과 기대는 경계해야 하고, '이겨야 한다' 는 강박증이 아니라, 이제 월

드컵을 즐길 수 있는 성숙한 대중을 위한 언론의 접근이 요구된다. 그리고 '태극전사'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청년' 등과 같은 자민족 중심주의에 근거한 과도한 애국주의를 드러내는 언어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월드컵에 대한 비평의 태도를 언론이 보여주어야 한다.

△ 신종호 편집장(월간 <북새통>) : 뉴스시간 중 월드컵 보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났다. 스포츠뉴스에선 월드컵을 집중 보도하되, 뉴스시간엔 사회 현안에 대한 보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

△ 표정훈(출판평론가) : 다양성이 사라지고, 모든 채널, 모든 프로그램이 월드컵 총력 체제로 돌입하는 일사불란함을 보여준다는게 문제다. 취향의 강요된 획일화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축구와 월드컵에 대한 고급의 깊이있는 분석을 접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 김도완 편집팀장(청림출판) : 방송 3사의 월드컵 프로그램 편중현상이 도를 넘었다. 방송사별로 매 경기 중계 시간대를 서로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박상익 교수(우석대) : 언론 자체가 기업화되어 자사의 이익(광고수입 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스포츠 상업주의를 부채질하고 있으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를 원천적으로 제지할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언론사의 문화부나 학술부 차원에서, 끊어오르는 대중의 열기를 가라앉힐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조용히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언론으로서 '건전한 양식' 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월드컵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사회 일각에 엄존하는 만큼, 이런 현실을 지면에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원종국 편집자(문학과학지성사) : 중대 사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뉴스가 톱뉴스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민을 길들인 것은 언론의 왜곡된 힘이다. 게임이나 바둑 채널처럼 스포츠전문채널에서만 스포츠를 다루는 것도 고려해볼직하다.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스포츠 중계나 뉴스에 사활을 건 듯한 모습을 보일때가 많은데, 그건 아무래도 미개한 것이다.

정리=〈출판저널〉 편집부